“기름 피해 서해 전역 확산 가능”

해양환경연 본부장 “바다 자연치유 회복 수십년 걸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범위가 서해 연안에 그치지 않고 서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해양연구원(경기도 안산 소재) 해양환경연구본부장 이재학 박사는 10일 이렇게 밝힌 뒤 “초기 방제의 성과에 따라 그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서해는 남쪽만 열려 있고 동.서.북이 막힌 폐쇄성 바다라는 특성으로 인해 해류의 순환이 더뎌 기름으로 오염된 바닷물이 외해와 완전히 순환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해가 동해나 남해와 달리 중국 산둥반도와 한반도로 3면이 막혀 있어 해수 유통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이 희석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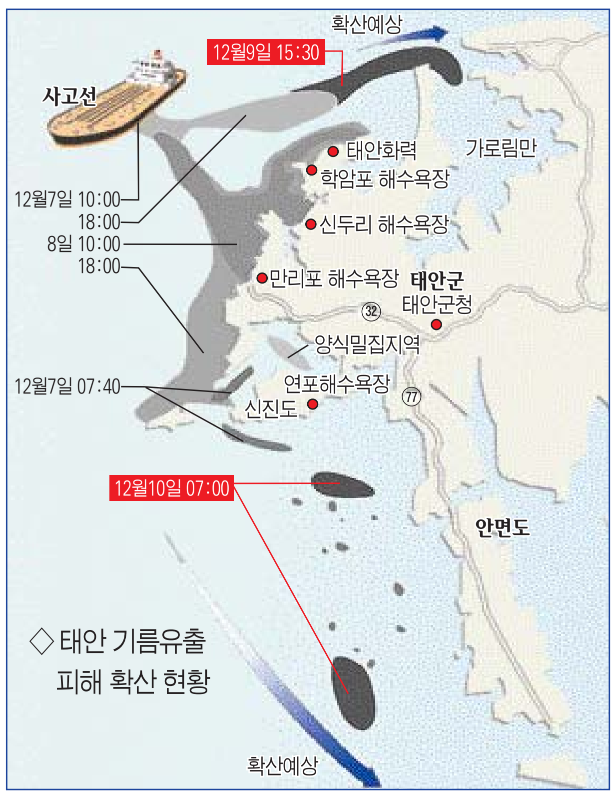
특히 원유의 화학적 성분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쌓이게 되면 철새가 죽고 양식어장이 폐사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피해 외에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바다의 자연치유를 통해 이를 회복하려면 수십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북서계절풍이 부는 겨울철이라 피해가 남쪽 연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해류의 이동이 왕복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서서히 북쪽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사고의 후유증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환경재앙’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난예방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초기대응이 적절치 못해 연안의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일이 조류가 가장 강한 날이어서 기름띠가 태안반도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장훈 상황실장은 10일 “음력으로 그뭄 다음날인 내일은 조류가 사고후 가장 강한 날”이라며 “이에 따라 해안가를 따라 기름띠가 움직이는 진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안 기름유출 피해 확산 현황

美 “기름 유출 수습 돕겠다”

미국 당국이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수습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의 해안경비대(Coast Guard)가 지난 8일 국무부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해상오염이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 오염방제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사고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결과를 미국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며 조속히 지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 해안경비대 측은 오염 방제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재 사고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측과 함께 정확한 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이를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1989년 이번 태안 사고 유출량의 4배에 가까운 3만8천t의 기름 유출로 미국 알래스카 해변을 오염시킨 엑손-발데스 오염사고를 수습하는 등 대형 해양오염 처리 경험이 많은 조직이다. /연합뉴스

대선 D-8 광주·전남 유세전

정동영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부인 민혜경〈중앙 왼쪽〉씨가 10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 여성 대표들로부터 주먹밥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이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밀리오레 앞에서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鄭후보 부인 “광주정신 보여달라”

한나라 오늘 광주·전남 공약 발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 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10일 광주·전남 곳곳을 누비며 세몰이에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선대위는 이날 민주·평화·개혁세력의 결집을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선대위는 “대선이 10일 남았다. 80년 5월 10일간의 항쟁이 진실의 승리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며 “민주·평화통일·개혁세력의 대변인인 정 후보를 당선시켜 제3기 민주정권을 꼭 창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동영 후보 부인 민혜경씨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 복지시설과 시장 등을 돌며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부패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해 “거짓이 아닌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광주정신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사회·여성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된 광주지역 여성 1천219명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정동영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후보는 거짓 후보다. 지금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고 광주의 역사적 자존심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다시 광주 여성들이 결심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즉석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민혜경씨에게 전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은 이날 한 영 최고위원과 이만의 광주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광주 첨단지구와 전남대 후문, 충장로 등지에서 지원유세를 갖고 이명박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광주시선대위와 전남선대위는 11일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정책선거 선언과 지역발전공약 발표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소속 이종구, 윤건영 의원과 김애실, 문희 의원 등이 지역정책공약을 발표한다.

‘지방성공시대’를 슬로건으로 한 광주·전남 공약에는 기존 영산강 운하와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외에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성 ▲LED 조명도시 선정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간 공조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민 공조나 이 후보와 연대 등 방안은 현실성이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범여 후보 단일화와 관련 “조만간 (이인제) 후보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북구 일대를 돌며 지원유세를 벌였다. /정후식기자 who@

鄭, 盧대통령과 선긋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검찰의 ‘BBK 수사’를 고리로 노무현 대통령과 확실히 대립각을 세우며 부동층에 대한 공략을 시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굳건한 지지세가 반노무현 효과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방송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포문을 연 뒤 8일엔 검찰 직무감찰권 행사를 요구했다. 또 9일 방송연설에서는 “노 대통령이 검찰의 국민에 대한 배반을 좌시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발언들은 항간에 나돌고 있는 청와대와 이명박 후보간 ‘빅딜설’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정 후보 측은 “메시지 그대로 봐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정책적으로도 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손질’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최근 들어 유세 때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으로 가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 "여론을 들은체 만체 하는 노무현 정권의 연장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잇따라 ‘선 긋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캠프 내부에선 노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친노 진영 이탈 등 전통적 지지층 내부 균열로 부메랑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명동 사거리 유세에서 자신이 승리할 4가지 이유를 들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여론 우위는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차갑게 얼어붙은 민심을 잘 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밉고, 참여정부가 밉고, 정동영이도 보기 싫은 것도 변화를 열망하는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분단되는 쪽으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 “검찰, 탄핵·직무 감찰 요건인지 의문”

청와대는 10일 검찰의 BBK 수사 결과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감찰 및 수사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노 코멘트’라는 공식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BBK 수사팀의 탄핵과 관련, “(BBK 수사) 검찰팀을 탄핵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핵으로 갈만한 수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 고구려여!
광개토대제시여!